

## 교회소식

- 지난 주 공동의회에서 2019년 결산 보고와 2020년 예산안이 승인되었습니다. 홍성철 집사님께서 2020년 감사로 선출되었습니다.
- 선교부: 2020년 세광교회 단기선교
  - 기간: 2020년 2월17일 - 21일(Presidents Day Week)
  - 장소: Honduras (최문재 선교사)
  - 단기선교팀은 내일 새벽 2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 혼두라스 선교지와 단기선교팀을 위해, 특히 기도를 맡은 팀원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목은 안내 테이블에 있습니다.
- 김현기 전도사 목사안수식
  - 오늘 오후 5시. 필그림선교교회 (양춘길 목사) 125 Galway Pl, Teaneck, NJ 07666

제20권 7호

2020년 2월 16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 예 배 안 내

English Service	10am / Sanctuary
주일 예배	12pm / 본당
금요 기도회	8pm / 본당
토요 새벽기도	6am / 본당

### 주 일 학 교

유치부	12pm / 유치부실
유년부	12pm / 유년부실
중·고등부	12pm / 소예배실

## 섬기는 사람들

2월 안내: 박홍매 집사  
 다음 주 대표기도: 이승택 집사 (시편 2)  
 이번 주 친교: 임수연 집사, 김은영 집사  
 다음 주 친교: 이향복 집사

## 기도

“영혼이 잘 됨 같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위해  
 하나님께 기쁨 받으시는 예배  
 심령에 들려 열매 맺는 말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직하고 담대하게 선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  
 “범사에 강건하기를”: 교제와 양육이 풍성해지도록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거룩과 성령충만. 지혜와 은사. 강건함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 순돈호(솔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이정석(WEC 본부),  
 장영호(러시아 미전도 종족),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 성경공부 및 모임

출애굽기 성경공부	목 8pm / 회의실
	토 7:30am / 회의실
중·고등부 성경공부	금 8pm / 중·고등부실
새가족 모임	주일에배 후 목회자실
구역 모임	구역별

##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민영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 교회 연락처

(914) 874-3606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Homepage: 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 English Service

<10am>

Worship Leader: **Pastor Edwin Kim**

- Opening Praise-----“10,000 Reasons” ----- Together
- \*Call to Worship ----- Together
- \*Worship & Praise ----- Together
- Confessional Prayer ----- Together
- Apostle’s Creed ----- Together
- Offering Prayer----- Leader
- Word of God----- **Joshua 1:1-10** ----- Pastor Edwin Kim
- Sermon ----- **“Trust, Obey, and Go”**----- Pastor Edwin Kim
- Intercessory Prayer ----- Together
- Closing Praise ----- “I Need You More”----- Together
- \*Benediction ----- Rev. Lee

### 주일 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 \*입례찬송-----1장(통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함께  
Opening Hymn **God is Our Refuge Strong**
- \*경배와 찬양 ----- 다함께  
Worship & Praise
- \*신앙고백----- 다함께  
Apostle’s Creed
- \*찬송 ----- 526장(통316장) “목마른 자들아” ----- 다함께  
Hymn **Come, Ye Disconsolate**
- 대표기도-----시편119:1-8 ----- 이영순 권사  
Prayer **Psalms 119:1-8**
- 찬양 ----- “주를 향해 걸어가리” ----- 세광 찬양대  
Anthem **Sekwang Choir**
- 봉헌기도----- 인도자  
Offering Prayer
- 성경봉독 ----- **이사야 55:1-5** ----- 인도자  
Word of God **Isaiah 55:1-5**
- 설교 ----- **“물로 나아오라”** ----- 이민영 목사  
Sermon
- 인사 및 광고-----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s
- \*찬송 ----- 183장(통172장) “빈 들에 마른 풀 같이” ----- 다함께  
Hymn **There Shall be Showers of Blessing**
- \*축도 -----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 지난 주 주일 말씀

#### 구원의 성벽, 찬송의 성문 이사야 54:11-17

53장에 나온 여호와와 종의 사역으로 인해 임하게 될 은혜 두번째 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든든한 성벽을 쌓아 주시겠다고 합니다. 공의로 든든하게 설 것이며, 이스라엘과 분쟁하던 세력이 오히려 정죄 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여호와 없이 집을 짓고 성을 지키려다(시 127 참조) 곤고하고 쉬 흔들리며 위로할 이 없게 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성벽과 성문, 기초는 튼튼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석으로 쌓고 세우십니다. 전쟁을 면하고 튼튼한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성벽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보석같은 백성으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현실의 당면한 구원,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언제나 넘어섭니다. 구하고 찾는 자마다 반드시 은혜를 입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문을 열어 은혜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기도 제목의 응답 보다 훨씬 근본적인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응답이 되십니다. 그날 당해 절박한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살 만하다고, 응답을 받았다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대적으로부터 지켜주는 성벽이 되실 뿐 아니라, 찬란한 보석 같은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다투려 하는 자들의 분쟁을 헛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송사하던 자들이 오히려 정죄를 받을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릴 때 공의의 판단으로 신원해 주십니다. 스스로 의를 세우려다 악을 저지르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주께서 판단하실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의를 행합니다. 선하게 삽니다. 비난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합니다. 튼튼한 성벽을 넘어 찬란한 보석이 됩니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의 송사가 무력화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입어 징벌을 면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롭게 살아갑니다. 의를 행합니다. 지옥 정죄를 면했을 뿐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 아니라 기쁜 찬송의 문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겨우 목숨만 건지는 게 아니라 풍성하고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겨우 형벌이나 면한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완성된 교회는 찬란한 보석으로 된 성벽과 성문, 바닥과 길이 있습니다. 단장한 신부처럼 찬란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해와 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빛이 되십니다.

이 은혜는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나 우리 기대와 소망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누립니다. 겨우 참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 보석과 같은 귀한 자들로 서로를 보고 사랑합니다. 매주 그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됩시다.

<Memo>